

## 2016년 북·중 무역통계의 공개 시기별 격차 비교

**최장호**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이정균**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jkrhee@kiep.go.kr, Tel: 044-414-1084)

## 차 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016년 북·중 무역통계의 시기별 집계 격차 비교
3. 중국해관의 북·중 무역통계 조정과 국제기구 제출 여부
4. 통계 조정에 대한 제언

## 주요 내용

- ▶ 중국해관이 공개한 2016년 북·중 무역통계가 공개 시기(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7년 8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무역통계에서 잠정치와 확정치가 발표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상적으로 발생함. 또한 각국은 자국의 통계를 작성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가장 나중에 발표한 통계를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임.
  - 그러나 이번 중국해관의 북·중 무역 통계치 조정은 규모가 크고 이례적임.
- ▶ 잠정통계(2016년 12월 공개)의 2016년 북·중 무역규모는 총 58억 8천만 달러(북한의 대중 수출 26억 9천만 달러, 대중 수입 31억 9천만 달러), 확정통계 1은 53억 7천만 달러(대중 수출 25억 3천만 달러, 대중 수입 28억 3천만 달러), 확정통계 2는 56억 5천만 달러(대중 수출 25억 7천만 달러, 대중 수입 30억 8천만 달러)로 차이를 보임.
  - 잠정통계, 확정통계 1, 확정통계 2는 여러 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잠정통계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확정통계 1은 UN Comtrade 홈페이지, 확정통계 2는 중국해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북·중 무역통계 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 북·중 무역통계 조정이 야기하는 혼란은 두 가지임. 첫째, 2016년 북·중 무역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에 대한 평가가 증가(잠정통계)→감소(확정통계 1)→증가(확정통계 2)로 변하게 됨. 둘째, 2017년 북·중 무역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 평가 역시 잠정통계, 확정통계 1, 확정통계 2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평가가 바뀌게 됨.
- ▶ 중국해관은 자국 통계를 작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2차례에 걸친 북·중 무역 통계치 조정도 중국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와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 혼란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UN Comtrade와 KITA 등 중국해관이 작성한 통계를 인용하는 기관에서는 중국해관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통계를 개시하여 관련자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앞으로 2016년 북·중 무역통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중국해관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중국해관이 공개한 2016년 북중 무역통계가 공개 시기(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7년 8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국해관은 정기적으로 매월 말 전월(前月) 중국의 대북(對北) 무역을 포함하여 국가별, 상품별, 통상구별 대외 무역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2016년 12월 말, 11월 북·중 무역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당시 해관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11월) 월별 북·중 무역통계 조회가 가능하였음.
- 2017년 1월 말에도 2016년 12월 북·중 무역 잠정통계를 발표하였는데, 주목을 끄는 점은 시기를 같이하여 해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5년 북·중 무역통계와 2016년 1~11월 월별 북·중 무역통계가 2016년 12월 말에 공개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임. 이 통계는 2017년 8월 말 재수정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중국해관이 2016년 1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 1~11월 통계를 '잠정통계(연간 통계와 비교하기 위해 12월 통계도 포함하였음),' 2017년 1월에 공개한 2016년 1~12월까지의 통계를 '확정통계 1,' 2017년 8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 1~12월 통계를 '확정통계 2'라고 칭함.

■ 이와 같이 중국해관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가 발표시기(잠정통계, 확정통계 1, 확정통계 2)별로 각 품목의 구성 비중과 월별 거래추이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북·중 무역통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무역통계에서 잠정치와 확정치가 발표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상적으로 발생함. 또한 각국은 자국의 통계를 작성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가장 나중에 발표한 통계를 공식통계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임.
- 그러나 이번 중국해관의 북·중 무역 통계치 조정은 규모가 크고 이례적임. 일반적으로 중국의 국제무역 통계는 1% 이내에서 조정되어왔으며, 이례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3% 수준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번의 2015년, 2016년 북·중 무역통계 조정은 5~10% 수준으로 이루어졌음.
- 2016년 북·중 무역통계는 전년대비 무역규모의 증·감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경계'상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잠정통계 기준 2016년 북·중 무역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반면, 확정통계 1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평가 가능함. 그러던 것이 확정통계 2로 재조정되면서 2016년 북·중 무역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바뀜.
- 이처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임에 따라 어떤 통계치를 2016년 북중 무역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2017년 북·중 무역에 대한 평가도 바뀌게 됨.
- 북·중 무역통계가 북한경제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계임을 감안하면 중국해관의 조정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1) 발표 시기가 2016년 12월 말이어서 잠정통계에는 2016년 12월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본 연구에서는 잠정통계와 다른 통계를 비교하기 위해 확정통계 1의 2016년 12월 통계를 잠정통계의 2016년 12월 통계로 포함하였음.

## 2. 2016년 북·중 무역통계의 시기별 집계 격차 비교

### 가. 북·중 무역통계의 조정

■ 중국해관이 시기를 달리하여 공개한 잠정통계(2016년 12월 말에 공개한 1~11월까지 북·중 무역통계에 이후 추가로 공개한 12월 통계를 포함한 것), 확정통계 1(2017년 1월 공개한 통계), 확정통계 2(2017년 8월 공개한 통계)의 시기별 차액은 [표 1]과 같음.

- 2017년 1월 말의 통계 조정은 2015년과 2016년의 수출입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17년 8월경의 조정은 2016년 수출입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잠정통계의 2016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6억 9천만 달러(전년대비 8.5% 증가), 대중 수입은 31억 9천만 달러(전년대비 8.1%), 총무역은 58억 8천만 달러(전년대비 8.3% 증가)
- 확정통계 1의 2016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5억 3천만 달러(전년대비 1.2% 감소), 대중 수입은 28억 3천만 달러(전년대비 4.1% 감소), 총무역은 53억 7천만 달러(전년대비 2.5% 감소)
- 확정통계 2의 2016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5억 7천만 달러(전년대비 0.4% 증가), 대중 수입은 30억 8천만 달러(전년대비 4.4% 증가), 총무역은 56억 5천만 달러(전년대비 2.5% 증가)

표 1. 잠정통계와 확정통계 1·2의 2015~16년 북·중 무역 차액 비교

(단위: 억 달러)

구분		잠정통계 (공개 시기: 2016. 12)			확정통계 1 (공개 시기: 2017. 1)			확정통계 2 (공개 시기: 2017. 8)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대중 수출	금액	24.8	26.9	2.1 (8.5%)	25.6	25.3	-0.3 (-1.2%)	25.6	25.7	0.1 (0.4%)
	잠정통계 대비 증감	-	-	-	0.8 (3.2%)	-1.6 (-5.9%)	-	0.8 (3.2%)	-1.2 (-4.5%)	-
대중 수입	금액	29.5	31.9	2.4 (8.1%)	29.5	28.3	-1.2 (-4.1%)	29.5	30.8	1.3 (4.4%)
	잠정통계 대비 증감	-	-	-	-	-3.6 (-11.3%)	-	-	-1.1 (-3.4%)	-
대중 총무역	금액	54.3	58.8	4.5 (8.3%)	55.1	53.7	-1.4 (-2.5%)	55.1	56.5	1.4 (2.5%)
	잠정통계 대비 증감	-	-	-	0.8 (1.5%)	-5.1 (-8.7%)	-	0.8 (1.5%)	-2.3 (3.9%)	-

주: 각 통계치는 반올림하여 계상, ( ) 안은 잠정통계 대비 확정통계 1, 2의 증감률.  
자료: 중국해관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7. 9. 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잠정통계, 확정통계 1, 확정통계 2는 여러 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 잠정통계는 한국무역협회(KIT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KITA는 중국해관이 공개하는 월별 북·중 무역통계를 입수하여 개시하고 있으나, 중국해관이 관련 통계를 조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 확정통계 1은 2017년 9월 6일 현재 UN Comtrad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중국해관이 UN에 중국의 대외무역 통계로 제출한 것으로 추정됨.
  - ※ 추후에 중국해관이 확정통계 2를 UN에 재(再)제출할 개연성도 있음. 이 경우, 공식기관에서 확정통계 1은 확인이 불가능
- 확정통계 2는 현재 해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함.

■ 중국해관의 북·중 무역통계 조정 폭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통계 조정보다 금액 면에서는 작다고 할 수 있으나, 비중 면에서는 이례적으로 큼(표 2 참고).

- 확정통계 1 공개 시기(2017년 1월)에 이루어진 다른 국가(미국, 일본, 한국, 몽골)와의 무역액 조정을 비교 해 보면 평균적으로 약 16억 1천만 달러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평균 -1.8%의 조정비율에 해당하는 것임.
- 반면 북·중 무역은 조정액만 놓고 보면 감액된 5억 3천만 달러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나, 북·중 무역규모를 고려하면 조정비율 -9.1%는 이례적인 수준임.

■ 통계 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중국해관 등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같은 기간 해관 통관제도나 무역통계 작성방법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무역 관계자(관세청 담당자, 관세사 등)에게 문의 결과, 일반적으로 잠정통계와 확정통계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출입신고와 집행의 시차, 통계 집계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누락 때문이라고 함.
  - 수출입신고와 집행의 시차는 수출입업자가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실제 수출입을 하지 못한 것을 말함. 이 경우 관련 수출입이 접수된 서류를 집계하여 공개하는 잠정통계에는 포함되나, 연말에 집행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확정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게 됨.
  - 통계 집계과정에서의 실수는 잠정통계 공개 때 누락되거나 이중 집계되었던 것이 확정통계 공개 때 수정되는 경우임.
- 그러나 수출입통계의 조정이 이번 경우처럼 다양한 품목에 걸쳐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 판단됨.

■ 중국해관의 통계 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임.

- 첫째, 2016년 북·중 무역 동향에 대한 평가가 바뀔. 잠정통계 기준 2016년 북·중 무역은 전년대비 8.3% 증가하였으나, 확정통계 1 기준으로는 2.5% 감소하였으며, 확정통계 2 기준으로는 2.5% 증가한 것이 됨.
- 둘째, 2017년 북·중 무역을 전년대비 비교하는 경우, 어떤 통계를 기준 년(2016년) 통계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바뀔 수 있음.
- 이에 대북제재안(UNSCR 2321, 2371, 2375)의 실효성 평가를 위해 관련 통계를 이용하는 데 주의가 요구됨.

표 2. 중국 주요 무역대상국별 무역통계 비교

(단위: 억 달러, %)

국가	구분	연도	잠정통계 (KITA)	확정통계 1 (UN Comtrade)		확정통계 2 (중국해관 홈페이지)	
				금액	잠정통계 대비 증감률(%)	금액	잠정통계 대비 증감률(%)
북한	수출	2013	36.3	36.3	0.0	-	-
		2014	35.2	35.2	0.0	-	-
		2015	29.5	29.5	0.0	29.5	0.0
		2016	31.9	28.3	-11.3	30.8	-3.4
	수입	2013	29.1	29.2	0.4	-	-
		2014	28.4	28.5	0.2	-	-
		2015	24.8	24.9	0.1	25.6	3.2
		2016	26.9	25.3	-5.9	25.7	-4.5
한국	수출	2013	906.5	911.5	0.5	-	-
		2014	1,004.0	1,003.4	-0.1	-	-
		2015	1,014.3	1,012.6	-0.2	1,013.1	-0.12
		2016	957.5	936.4	-2.2	937.4	-2.1
	수입	2013	1,793.6	1,829.3	2.0	-	-
		2014	1,902.9	1,901.0	-0.1	-	-
		2015	1,742.9	1,742.0	0.0	1,744.8	0.1
		2016	1,587.6	1,584.5	-0.2	1,589.9	0.1
일본	수출	2013	1,486.7	1,497.6	0.7	-	-
		2014	1,494.5	1,492.6	-0.1	-	-
		2015	1,359.0	1,357.2	-0.1	1,357.6	-0.1
		2016	1,295.1	1,290.3	-0.4	1,293.8	-0.1
	수입	2013	1,590.9	1,621.1	1.9	-	-
		2014	1,626.9	1,625.1	-0.1	-	-
		2015	1,427.2	1,426.9	0.0	1,430.7	0.2
		2016	1,452.4	1,450.0	-0.2	1,457.1	0.3
몽골	수출	2013	24.5	24.5	0.0	-	-
		2014	22.2	22.2	0.0	-	-
		2015	15.7	15.7	0.0	15.7	0.0
		2016	9.9	9.9	0.0	9.9	0.0
	수입	2013	35.0	35.1	0.2	-	-
		2014	50.7	50.8	0.2	-	-
		2015	37.5	38.1	1.5	38.1	1.5
		2016	35.3	36.3	2.9	36.4	3.1
미국	수출	2013	3,662.7	3,683.0	0.6	-	-
		2014	3,960.6	3,960.1	0.0	-	-
		2015	4,100.2	4,088.6	-0.3	4,089.8	-0.3
		2016	3,886.2	3,848.9	-1.0	3,855.8	-0.8
	수입	2013	1,442.8	1,459.5	16.7	-	-
		2014	1,531.3	1,529.7	-1.6	-	-
		2015	1,439.8	1,436.8	-3.1	1,494.7	3.8
		2016	1,323.9	1,316.6	-7.4	1,344.7	1.6

자료: KITA;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중국해관 홈페이지(검색일: 2017. 9. 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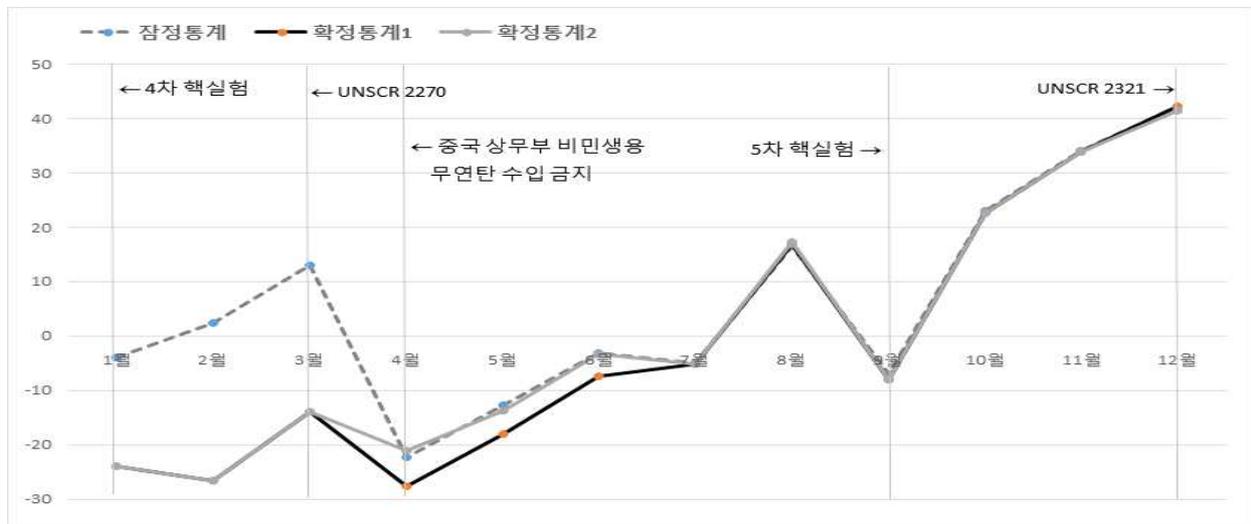
## 나. 2016년 1~12월 북·중 무역

■ [분기별 북한의 대중 수출 잠정통계, 확정통계 1, 확정통계 2는 주로 1/4~2/4분기에 조정이 이루어짐(그림 1 참고).

- 1/4분기의 경우, 잠정통계 → 확정통계 1·2로 바뀌면서 수출액이 줄어듦.
- 2/4분기는 잠정통계 → 확정통계 1로 바뀌면서 수출액이 줄어들었다가, 확정통계 1 → 확정통계 2로 바뀌면서 다시 잠정통계 수준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됨.
- 확정통계 2의 경우, 북한의 대중 수출이 대체적으로 연중 증가하는 형태로 조정됨.

그림 1. 잠정통계와 확정통계 1·2의 북한의 대중 수출 증감률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검색일: 2017. 2. 20, 8. 23); 중국해관 홈페이지(검색일: 2017. 2. 20, 8. 29)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 [월별 북한의 대중 수출] 상반기는 감액, 하반기는 미미한 수준이나 증액이 이루어졌음(표 3 참고).

- 확정통계 1·2는 1~3월의 조정 폭이 제일 큰데, 1월에서 3월로 갈수록 감액이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관련하여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상반기 1월 6일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음. 3월 2일에는 UNSCR 2270이 통과되었으며, 4월 5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비민생용 무연탄 수입금지를 각 세관에 공고하였음.
  - 하반기인 9월 9일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11월 30일에는 UNSCR 2321이 통과되었음.
- 수출액 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를 상술한 '서류 접수 후 미이행'과 연계하여 해석을 해 보면,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상무부가 '비민생용 무연탄 수입금지'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일선 세관(해관)이 공고 전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다가 공고 후에 관련 서류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잠정통계에는 반려된 통계가 포함되었다가 확정통계 1에서는 반려통계가 누락되었을 개연성도 있음.
- 후술하겠으나, 통계 조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UNSCR 2270에서 신규 제재하였던 것 외의 품목도 수출액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임.

표 3. 통계공개 시기별 북한의 대중국 수출 증감률 비교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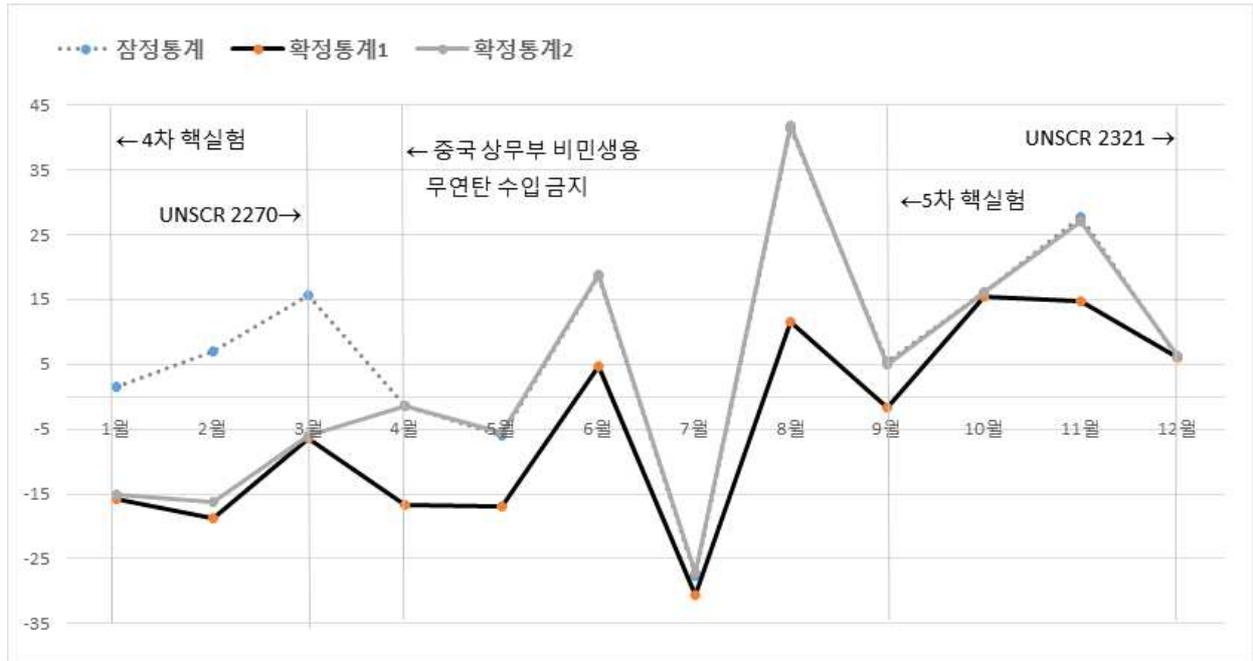
월	① 잠정통계(2016. 12)	② 확정통계 1(2017. 1)		③ 확정통계 2(2017. 8)	
	금액	금액	① - ② (증감률)	금액	① - ③ (증감률)
1	183	145	-38 (-20.8%)	145	-38 (-20.8%)
2	167	120	-47 (-28.1%)	120	-47 (-28.1%)
3	237	180	-57 (-24.1%)	180	-57 (-24.1%)
4	167	156	-11 (-6.6%)	170	3 (1.8%)
5	180	172	-8 (-4.4%)	181	1 (0.6%)
6	215	208	-7 (-3.3%)	217	2 (0.9%)
7	232	233	1 (0.4%)	233	1 (0.4%)
8	286	292	6 (2.1%)	293	7 (2.4%)
9	234	234	0 (0.0%)	234	0 (0.0%)
10	238	239	1 (0.4%)	239	1 (0.4%)
11	262	262	0 (0.0%)	262	0 (0.0%)
12	291	291	0 (0.0%)	296	5 (1.7%)
총계	3,195	2,533	-160 (-5.9%)	2,573	-120 (-4.4%)

주: 각 통계치는 반올림하여 계산.  
자료: 중국해관 홈페이지(검색일: 2017. 2. 20, 8. 28)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분기별 북한의 대중 수입] 대중 수입은 전 분기에 걸쳐 조정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1/4분기만 조정이 이루어진 형태로 재조정됨(그림 3 참고).
- 잠정통계에서 확정통계 1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 분기에 걸쳐 대중 수입액이 감액됨.
- 그러던 것이 확정통계 1에서 확정통계 2로 바뀌는 과정에서 2/4~4/4분기 대중 수입액이 잠정통계 수준으로 증액됨.

그림 2. 잠정통계와 확정통계 1·2의 북한의 대중 수입 증감률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검색일: 2017. 2. 20, 8. 23); 중국해관 홈페이지(검색일: 2017. 2. 20, 8. 29)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 [월별 북한의 대중 수입] 상반기는 감액, 하반기는 미미한 수준이나 증액이 이루어졌음(표 4 참고).

- 확정통계 1의 경우 15.0% 이상 감액된 달은 1~4월, 8월임. 주로 1/4분기에 조정이 이루어졌음.
- 확정통계 2의 경우 수출에서의 조정과 유사하게 1~3월만 감액 조정된 것이 유지되었고, 나머지 달은 잠정통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조정되었음.
- 통계 조정사유로는 대중 수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상무부와 대북제재안을 일선 세관(해관)으로 전달하는 과정의 시차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확정통계 1에서 대폭 삭감 조정되었던 것이 확정통계 2에서는 다시 잠정통계 수준으로 재조정된 구체적인 이유는 추정하기 어려움.

표 4. 통계 공개 시기별 북한의 대중국 수입 증감률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월	잠정통계(2016. 12)	확정통계 1(2017. 1)		확정통계 2(2017. 8)	
	① 금액	② 금액	① - ② (증감률)	③ 금액	① - ③ (증감률)
1월	211	175	-36 (-17.1%)	177	-34 (-16.1%)
2월	162	123	-39 (-24.1%)	127	-35 (-21.6%)
3월	236	191	-45 (-19.1%)	192	-44 (-18.6%)
4월	268	227	-41 (-15.3%)	268	0 (0.0%)

표 4. 계속

월	잠정통계(2016. 12)	확정통계 1(2017. 1)		확정통계 2(2017. 8)	
	① 금액	② 금액	① - ② (증감률)	③ 금액	① - ③ (증감률)
5월	240	211	-29 (-12.1%)	240	0 (0.0%)
6월	288	255	-33 (-11.5%)	289	1 (0.3%)
7월	193	185	-8 (-4.1%)	194	1 (0.5%)
8월	337	265	-72 (-21.4%)	337	0 (0.0%)
9월	286	267	-19 (-6.6%)	285	-1 (-0.3%)
10월	287	285	-2 (-0.7%)	287	0 (0.0%)
11월	351	316	-35 (-10.0%)	350	-1 (-0.3%)
12월	336	336	0 (0.0%)	336	0 (0.0%)
총액	3,195	2,836	-359 (-11.2%)	3,082	-113 (-3.5%)

주: 각 통계치는 반올림하여 계상.  
자료: 중국해관 홈페이지(검색일: 2017. 2. 20, 8. 28)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 다. 대중 수출의 주요 품목별(HS 2단위, 8단위) 비교<sup>2)</sup>

■ 중국해관의 북한의 대중 수출 조정은 일정한 방식과 규칙을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루어졌음.

- 잠정통계에서 확정통계 1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요 교역품목은 감액되었으나, 몇몇 품목은 오히려 증액되었음.

■ HS 2단위 기준, 잠정통계에서 확정통계 1·2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수교역품/미등록 품목(HS 98)'이 증액되었으며, '의류와 그 부속품류(HS 62)'은 감액되었음(표 5 참고).

- 증액 폭이 큰 것은 '특수교역품/미등록 품목'으로 잠정통계에서는 수출액이 '0'이었으나, 확정통계 1과 2에서는 6,60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그 외 '광물성연료류(27), 광슬래스·회류(26)' 등도 증액되었음.

- 감액 폭이 큰 것은 '의류와 그 부속품류(편물 제외)'이며, 그 외 '의류와 그 부속품류(편물)(61)',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85)' 등도 감액되었다가 확정통계 2에서 소폭 증액됨.

2) 수정된 통계는 1~11월까지로, 이를 중심으로 분석함. 중국해관이 공개한 2016년 12월 통계는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통계와 동일하여 비교에서 제외함.

표 5. 북한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별 비교: HS 2단위(2016년 1~12월)

(단위: 백만 달러, %)

잠정통계(2016. 12)			확정통계 1(2017. 1)				확정통계 2(2017. 8)			
순위	HS	① 금액	순위	HS	② 금액	② - ① (증감률)	순위	HS	③ 금액	③ - ① (증감률)
1	27	1,187.1	동일	27	1,195.3	8.2 (0.7)	동일	27	1,193.0	5.9 (0.5)
2	62	611.5	동일	62	475.7	-135.8 (-22.2)	동일	62	495.7	-115.8 (-18.9)
3	26	225.4	동일	26	226.7	1.4 (0.6)	동일	26	227.1	1.7 (0.8)
4	03	190.1	동일	03	190.1	0.0 (0.0)	동일	03	190.3	0.3 (0.1)
5	61	111.9	동일	61	85.4	-26.4 (-23.6)	동일	61	93.6	-18.3 (-16.3)
6	08	50.8	신규	98	72.5	-	신규	98	72.5	-
7	72	44.0	6	08	51.0	0.2 (0.3)	6	8	51.0	0.2 (0.3)
8	79	39.5	7	72	43.1	-0.9 (-2.1)	7	72	43.7	-0.4 (-0.8)
9	25	34.8	8	79	39.5	0.0 (0.0)	8	79	39.5	0.0 (0.0)
10	85	34.5	9	25	34.8	-0.0 (0.0)	9	25	34.8	0.0 (0.1)
11	44	19.2	10	85	22.7	-11.8 (-34.2)	10	85	28.2	-6.3 (-18.3)
12	74	13.9	11	44	19.2	0.0 (0.2)	11	44	19.2	0.0 (0.2)
13	12	11.3	12	74	13.9	0.0 (0.3)	12	74	13.9	0.0 (0.3)
14	07	6.3	13	12	11.3	0.0 (0.1)	13	12	11.3	-0.0 (-0.1)
15	70	6.1	14	7	6.3	0.0 (0.1)	14	07	6.3	0.0 (0.1)
16	56	4.2	15	70	6.1	0 (0.0)	15	70	6.1	0 (0.0)
17	38	4.1	동일	38	4.1	-0.0 (-0.7)	동일	38	4.3	0.1 (3.4)
18	28	3.9	동일	28	3.6	-0.2 (-6.4)	동일	28	3.6	-0.2 (-6.1)
19	58	3.3	동일	58	3.3	-0.0 (0.0)	16	56	3.5	-0.7 (-17.4)
20	16	2.4	16	56	3.3	-1.0 (-22.8)	19	58	3.3	-0.0 (0.0)
상위 20위 품목 합계		2,604.2	2,508.0		-93.8 (-3.6)		2,540.9		-60.9 (-2.3)	
기타품목 합계		88.0	25.2		-65.2 (-72.1)		31.6		-58.8 (-65.1)	
총수출 금액		2,692.2	2,533.2		-159.0 (-5.9)		2,572.5		-119.7 (-4.4)	

주: 각 통계치는 반올림하여 계상.

자료: 중국해관 홈페이지(검색일: 2016. 12. 27, 2017. 2. 24, 8. 29)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 HS 8단위 기준, 잠정통계에서 확정통계 1·2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출 상위 20위 품목은 대부분이 조정되었음 (표 6 참고).

- 증액 폭이 큰 것은 ‘저가 교역 통관상품<sup>3)</sup>(98040000)’으로 2015년 통계와 잠정통계 수출품목에는 없었으나, 확정통계 1에서는 6,600만 달러가 수출되었다고 공개함.
- 그 외 확정통계 1·2에서 대중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무연탄(27011100)은 모두 증액되었으며, 합성 섬유제의 남성 상의(62033300)도 증액됨.
- 확정통계 1에서 ‘저가 교역 통관품목’은 앞의 HS Code 2단위 ‘특수교역품/미등록 상품(98)’과 수출액이 동일함. 품목의 이름을 근거로 접경지역에서 보따리상 형태로 거래되는 소규모 무역상품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확정통계 1에서 감액 폭이 큰 것은 ‘합성섬유제의 남성 하의(62034390)’, ‘바람막이 남성 상의(62019390),’ ‘바람막이 여성 상의(62029390)’ 등 의류품목이나 확정통계 2에서는 다시 증액되어 잠정통계 수준으로 재수정됨.

## 라. 대중 수입의 주요 품목별(HS 2단위, 8단위) 비교<sup>4)</sup>

■ HS 2단위 기준, 잠정통계와 비교하여 확정통계 1의 대중 수입품목은 대부분 감액되었으나, 확정통계 2에서는 잠정통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액되었음(표 7 참고).

- 확정통계 1에서 감액 폭이 큰 것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류(85),’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08),’ ‘원자로·보일러·기계류(84),’ ‘플라스틱과 그 부품류(39),’ ‘동물성·식물성 지방(15)’ 등이나, 이들 품목 대부분은 확정통계 2에서 잠정통계 수준으로 증액되었음.

표 6. 북한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별 비교: HS 8단위(2016년 1~12월)

(단위: 백만 달러, %)

잠정통계(2016. 12)			확정통계 1(2017. 1)				확정통계 2(2017. 8)			
순위	HS	① 금액	순위	HS	② 금액	② - ① (증감률)	순위	HS	③ 금액	③ - ① (증감률)
1	27011100	1,177.0	동일	27011100	1,185.2	8.2 (0.7)	동일	27011100	1,182.9	5.9 (0.5)
2	03079900	135.8	동일	03079900	136.0	0.3 (0.2)	동일	03079900	136.0	0.3 (0.2)
3	62019390	117.1	동일	62019390	110.7	-6.4 (-5.4)	동일	62019390	113.6	-3.5 (-3.0)
4	26011110	64.5	신규	98040000	72.5	- (-)	신규	98040000	72.5	- (-)
5	26070000	61.5	4	26011110	64.5	0.0 (0.0)	4	26011110	64.4	-0.1 (-0.2)

3) 중국해관에서 공개한 통계에는 ‘低值簡易通關商品’으로 표기되어 있음(중국해관 홈페이지, 검색일: 2017. 2. 24).

4) 수정된 통계는 1~11월까지로, 이를 중심으로 분석함. 중국해관이 공개한 2016년 12월 통계는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통계와 동일하여 비교에서 제외함.

표 6. 계속

잠정통계(2016. 12)			확정통계 1(2017. 1)				확정통계 2(2017. 8)			
순위	HS	① 금액	순위	HS	② 금액	② - ① (증감률)	순위	HS	③ 금액	③ - ① (증감률)
6	62029390	60.2	8	26070000	61.5	0 (0.0)	8	26070000	61.5	0 (0.0)
7	62033300	57.3	5	62029390	55.3	-4.9 (-8.1)	5	62029390	58.4	-1.8 (-3.0)
8	62034390	53.8	9	26080000	51.0	0.2 (0.3)	9	26080000	51.0	0.2 (0.3)
9	26080000	50.9	11	79011200	39.5	0.0 (0.0)	11	79011200	39.5	0.0 (0.0)
10	79011200	39.5	10	08029090	38.3	0.3 (0.8)	동일	08029090	38.3	0.3 (0.8)
11	08029090	38.0	7	62034390	33.1	-20.8 (-38.5)	7	62034390	36.2	-17.6 (-32.7)
12	61091000	29.9	동일	61091000	29.8	-0.1 (-0.2)	동일	61091000	29.8	-0.1 (-0.2)
13	62043300	26.2	6	62033300	27.8	-29.5 (-51.5)	6	62033300	29.4	-27.9 (-48.7)
14	62029310	25.4	13	62029310	23.9	-1.5 (-6.0)	13	62029310	25.1	-0.3 (-1.2)
15	85045000	21.5	25	03061490	23.2	-0.0 (-0.1)	22	72011000	22.3	0.0 (0.2)
16	62021390	21.0	22	72011000	22.3	0.0 (0.2)	21	26030000	20.9	0.0 (0.1)
17	61099090	19.8	21	26030000	20.9	-0.0 (0.0)	15	85045000	20.0	-1.5 (-7.0)
18	25199030	19.6	19	25199030	19.5	0 (0.0)	19	25199030	19.5	0 (0.0)
19	03062499	19.0	16	62021390	19.2	-1.8 (-8.5)	동일	03062499	19.1	0.1 (0.7)
20	62113390	18.7	18	03062499	18.9	-0.1 (-0.4)	16	62021390	18.7	-2.3 (-10.9)
상위20위 합계		2,056.7	2,053.3		16.5 (0.8)		2,059.3		24.2 (1.2)	
기타품목 합계		635.5	479.9		-175.5 (-26.8)		513.2		2,548.3 (-125.2)	
총수출 금액		2,692.2	2,533.3		-159.0 (-5.9)		2,572.5		-119.7 (-4.4)	

자료: 중국해관 홈페이지(검색일: 2016. 12. 27, 2017. 2. 24, 8. 29)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표 7. 북한의 대중국 수입 주요 품목별 비교: HS 2단위(2016년 1~12월)

(단위: 백만 달러, %)

잠정통계(2016. 12)			확정통계 1(2017. 1)				확정통계 2(2017. 8)			
순위	HS	① 금액	순위	HS	② 금액	② - ① (증감률)	순위	HS	③ 금액	③ - ① (증감률)
1	85	315.5	동일	85	282.2	-33.3 (-10.6)	동일	85	298.1	-17.4 (-5.5)
2	84	268.6	동일	84	238.0	-30.6 (-11.4)	동일	84	257.8	-10.8 (-4.0)
3	87	254.8	동일	87	249.6	-5.2 (-2.0)	동일	87	253.2	-1.6 (-0.6)
4	39	204.5	동일	39	177.5	-27.1 (-13.2)	동일	39	201.0	-3.5 (-1.7)
5	54	187.0	동일	54	175.1	-11.9 (-6.4)	동일	54	183.4	-3.7 (-2.0)
6	27	141.6	동일	27	138.5	-3.1 (-2.2)	동일	27	140.1	-1.5 (-1.0)
7	61	134.8	동일	61	117.6	-17.2 (-12.7)	동일	61	126.5	-8.3 (-6.2)
8	72	115.3	동일	72	96.3	-18.9 (-16.4)	동일	72	110.1	-5.2 (-4.5)
9	08	99.6	11	60	76.7	-7.8 (-9.2)	10	15	91.7	-7.8 (-7.8)
10	15	99.5	동일	15	75.8	-23.7 (-23.8)	9	08	82.2	-17.4 (-17.5)
11	60	84.5	12	40	73.8	-5.3 (-6.7)	동일	60	82.1	-2.4 (-2.8)
12	40	79.0	13	03	73.7	-0.6 (-0.8)	동일	40	78.6	-0.4 (-0.5)
13	03	74.3	14	55	68.8	-2.4 (-3.4)	동일	03	74.7	0.3 (0.4)
14	55	71.2	9	08	67.8	-31.9 (-32.0)	동일	55	70.8	-0.4 (-0.6)
15	73	67.3	동일	73	55.8	-11.5 (-17.1)	동일	73	65.1	-2.2 (-3.3)
16	48	62.5	동일	48	53.7	-8.8 (-14.1)	동일	48	60.5	-2.0 (-3.1)
17	62	54.2	동일	62	45.1	-9.1 (-16.8)	19	56	49.4	-0.7 (-1.4)
18	96	50.5	동일	96	44.3	-6.2 (-12.3)	17	62	49.3	-4.8 (-8.9)
19	56	50.1	동일	56	44.0	-6.1 (-12.1)	18	96	46.6	-3.9 (-7.7)
20	69	46.6	동일	69	40.1	-6.5 (-14.0)	동일	69	45.6	-1.0 (-2.2)
상위20위 품목 합계		2,461.5	2,194.3		-267.2 (-10.9)		2,366.8		-94.7 (-3.8)	
기타품목 합계		730.6	640.1		-90.5 (-12.4)		714.1		-16.5 (-2.3)	
총수입 금액		3,192.0	2,834.4		-357.6 (-11.2)		3,080.9		-111.1 (-3.5)	

자료: 중국해관 홈페이지(검색일: 2016. 12. 27, 2017. 2. 24, 8. 29)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 HS 8단위 기준, 대중 수입 상위 20위 품목을 보면, 확정통계 1 에서 총 15개 품목이 감액되었으나, 대부분 확정통계 2에서 잠정통계 수준으로 재조정되었음(표 8 참고).

- 확정통계 1에서 감액 폭이 큰 것은 '사과(08081000),' '대두유(15079000)'로 각각 2,700만 달러, 2,200만 달러이며, 전체 수입 차액의 14.0%를 차지함. 이들 품목은 확정통계 2에서 잠정통계 수준으로 재조정됨.

표 8. 북한의 대중국 수입 주요 품목별 비교: HS 8단위(2016년 1~12월)

(단위: 백만 달러, %)

잠정통계(2016. 12)			확정통계 1(2017. 1)				확정통계 2(2017. 8)			
순위	HS	① 금액	순위	HS	② 금액	② - ① (증감률)	순위	HS	③ 금액	③ - ① (증감률)
1	87042300	102.9	동일	87042300	102.9	0 (0.0)	동일	87042300	102.9	-0.0 (0.0)
2	15079000	93.9	3	54076900	80.7	-4.6 (-5.4)	동일	15079000	86.2	-7.7 (-8.2)
3	54076900	85.4	2	15079000	71.0	-22.9 (-24.4)	동일	54076900	84.1	-1.3 (-1.5)
4	08081000	81.3	5	85171210	59.2	-0.0 (0.0)	동일	08081000	66.5	-14.8 (-18.2)
5	85171210	59.2	4	08081000	53.6	-27.8 (-34.1)	동일	85171210	59.2	-0.0 (0.0)
6	60063200	49.0	8	27101929	47.4	-0.0 (0.0)	8	27101929	47.4	-0.0 (0.0)
7	84713090	48.6	6	60063200	43.1	-5.9 (-12.1)	6	60063200	46.9	-2.1 (-4.3)
8	27101929	47.4	9	40112000	41.5	-1.4 (-3.2)	7	84713090	45.0	-3.6 (-7.3)
9	40112000	42.9	11	27101210	39.4	0 (0.0)	동일	40112000	42.8	-0.1 (-0.3)
10	69089000	39.5	7	84713090	34.6	-14.0 (-28.8)	동일	69089000	38.8	-0.7 (-1.7)
11	27101210	39.4	10	69089000	34.5	-4.9 (-12.6)	동일	27101210	38.6	-0.9 (-2.3)
12	54075200	36.1	동일	54075200	31.9	-4.1 (-11.5)	동일	54075200	34.5	-1.6 (-4.5)
13	31021000	32.4	14	39181090	30.9	-0.9 (-2.9)	동일	31021000	32.6	0.1 (0.4)
14	39181090	31.8	15	72107010	29.7	-0.6 (-2.1)	동일	39181090	31.9	0.1 (0.3)
15	72107010	30.3	17	85287221	27.7	0.2 (0.6)	동일	72107010	30.0	-0.3 (-0.9)
16	85287222	27.5	13	31021000	26.9	-5.5 (-17.0)	17	85287221	27.7	0.2 (0.8)
17	85287221	27.5	18	61091000	25.9	-1.4 (-5.0)	18	61091000	27.0	-0.2 (-0.8)
18	61091000	27.3	16	85287222	25.4	-2.1 (-7.5)	16	85287222	26.3	-1.2 (-4.5)
19	03079900	25.0	동일	03079900	25.0	0 (0.0)	동일	03079900	25.0	0 (0.0)
20	10063090	24.8	동일	10063090	24.8	0 (0.0)	동일	10063090	24.8	0 (0.0)
상위20위 합계		952.4	856.3		-96.2 (-10.1)		918.3		-34.1 (-3.6)	
기타품목 합계		2,239.6	1,978.1		-261.5 (-11.7)		2,162.6		-77.0 (-3.4)	
총수입금액		3,192.0	2,834.4		-357.6 (-11.2)		3,080.9		-111.1 (-3.5)	

자료: 중국해관 홈페이지(검색일: 2016. 12. 27, 2017. 2. 24, 8. 29)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 논의이기는 하나 특이한 점은 2013년 이후 북한의 중국 사과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번 통계 수정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는 것임. 북한의 사과 수입 증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부분임.

- 2006~09년(UNSCR 1695~UNSCR 1874) 동안 북한의 대중 사과 수입은 감소 추세였으나, 2013년 UNSCR 2087 이후 사과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 2006년 7월 15일(UNSCR 1695), 10월 14일(UNSCR 1718): 사과 수출량 9~12월 지속 감소
  - 2009년 6월 12일(UNSCR 1874): 사과 수출량 6월 이후 감소, 8~12월 수출량 없음.
  - 2013년(UNSCR 2087), 2016년(UNSCR 2270, 2321): 지속적으로 증가
- 북한이 사과를 많이 수입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일각에서는 북한주민의 소득수준 개선으로 인한 소비 증가와 김정은 집권(2011년) 이후 정책적(인민생활 향상)인 이유로 증가하였다는 의견을 개진

### 3. 중국해관의 북·중 무역통계 조정과 국제기구 제출 여부

#### 가. 국제기구별 북·중 무역통계 비교

■ 각 기관별 북·중 무역통계 현황을 비교하면 [표 9]와 같음.

- 중국해관은 대외무역 통계를 집계한 후 IMF, UN 등에 제출하였음. 이에 IMF, UN을 비롯한 KITA, KOTRA 등이 중국해관의 통계를 기반으로 북·중 무역통계를 제공하고 있음(표 9 참고).

표 9. 국제기구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IMF	UN	KOTRA	KITA	해관	IMF	UN	KOTRA	KITA	해관	IMF	UN	KOTRA	KITA	해관
'09	790	793	793	501	-	1,891	1,888	1,888	1,210	-	2,681	2,681	2,681	1,711	-
'10	1,188	1,195	1,188	1,188	-	2,278	2,277	2,278	2,278	-	3,466	3,472	3,466	3,466	-
'11	2,464	2,475	2,464	2,464	-	3,165	3,165	3,165	3,165	-	5,629	5,640	5,629	5,629	-
'12	2,485	2,503	2,485	2,485	-	3,446	3,532	3,528	3,446	-	5,931	6,035	6,013	5,931	-
'13	2,914	2,927	2,914	2,912	-	3,633	3,630	3,633	3,633	-	6,547	6,557	6,547	6,545	-
'14	2,841	2,868	2,841	2,841	2,866	3,523	3,520	4,023	3,523	3,521	6,364	6,388	6,864	6,364	6,387
'15	2,484	2,567	2,484	2,484	2,565	2,946	2,943	3,226	2,946	2,947	5,430	5,510	5,710	5,430	5,511
'16	2,707	2,537	2,634	2,634	2,698	3,197	2,841	3,422	3,192	3,195	5,904	5,378	6,056	5,826	5,893
					2,538					2,836					5,374
					2,570					3,082					5,652

주: 1) 2016년 중국해관 통계는 3차례 공개 시기에 따라 나누어 표기. 2016. 12(위), 2017. 1(중간), 2017. 8(아래).

KOTRA 통계 중 2015~16년의 것이 다른 것은 중국의 대중 원유제공분을 포함하였기 때문임. KOTRA는 중국이 연간 50만 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 국제원유가를 적용하여 2015년에는 2.8억 달러, 2016년은 2.3억 달러로 추산.<sup>5)</sup>

2) 각 통계치는 반올림하여 계상.

자료: IMF DOTS; UN Comtrade;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ITA; 중국해관 홈페이지(검색일: 2017. 8. 17).

-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시기를 달리하여 공개한 북·중 무역통계가 여러기관에서 게시되어 있고 각 기관마다 통계치 격차가 커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임.
- 잠정통계는 KITA와 KOTRA, 확정통계 1은 IMF, UN·Comtrade, 확정통계 2는 중국해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과거 중국해관이 공개한 2009~15년 동안 북한 대외무역 통계는 각 국제기구 및 한국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통계 유사한 수준임.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례적인 수준으로 큰 규모는 아님.

■ 북한경제를 평가하기 위해 북·중 무역통계를 주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해관의 통계 조정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중국해관은 관련 통계를 작성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중국해관이 가장 최근에 작성한 통계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례임.
- 이번 중국해관의 통계 조정으로 학계와 언론의 2016년 북·중 무역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 상황
  - 잠정통계를 기준으로 임수호, 최장호(2017)<sup>6)</sup>는 2016년 북·중 무역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고 평가
  - 반면 2017년 1/4분기 확정통계 1을 인용하여 미국 Washington Post, Newyork Times, 한국 연합뉴스 등 유수의 언론이 그 통계를 기준으로 2016년 북·중 무역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고 보도
  - 확정통계 2를 인용한 연구나 언론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를 인용할 경우 2016년 북·중 무역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나. 과거 통계 조정 사례

■ 2016년의 통계 조정은 예외적인 경우로, 과거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통계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음.

- 중국해관이 북·중 무역통계를 이례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2회였음.
  - 첫 번째 사례: 2009년으로, 8~11월 동안 북·중 무역통계를 '0'으로 게시함. 그러나 이후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는 누락된 기간의 무역을 모두 포함하였음.
  - 두 번째 사례: 2014년 1월~현재까지 북·중 무역통계에서 대북(對北)원유 수출을 '0'으로 게시함.

## 4. 통계 조정에 대한 제언

■ 이번의 통계 조정은 2016년 북·중 무역의 증감여부를 평가하는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의류와 무연탄 등 일부 품목의 조정 폭은 이유를 추정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이루어졌음.

- 통계 조정은 2016년 북·중 무역 동향 평가는 물론, 2017년 북·중 무역 동향 평가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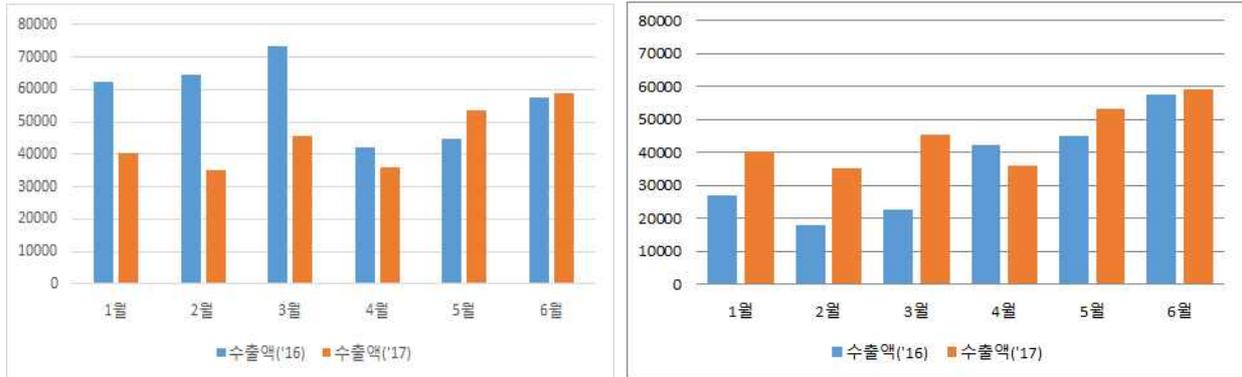
5) KOTRA(2016), 「북한대외무역동향」.

6) 임수호, 최장호(2017), 「북한 대외무역 2016년 평가 및 2017년 전망: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1월)

- 그러나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국의 통계를 작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의 2차례에 걸친 북·중 무역 통계치 조정도 중국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 중국해관은 관련 통계의 통계조정 폭이 클 경우 관련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혼란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UN Comtrade와 KITA 등 중국해관이 작성한 통계를 인용하는 기관에서는 중국해관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통계를 개시하여 관련자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앞으로 2016년 북·중 무역통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중국해관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잠정통계와 확정통계 2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2016년 북·중 무역액으로는 KITA(잠정통계와 유사), 중국해관통계(확정통계 2)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혹은 2016년 통계 이용 시 세 통계의 차이를 모두 명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을 판단됨.
    -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활용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UN Comtrade(확정통계 1)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통계가 중국해관통계(확정통계 2)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의류 등 일부 품목은 그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명기하는 것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품목단위 분석의 경우 2015·2016년 북·중 무역통계 이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몇몇 품목은 각 조정 시기별 조정 폭이 큰 데 반해 구체적인 이유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최근에 공개한 통계를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품목단위 분석은 상술한 공개 시기별 통계 세 가지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대표적인 것이 의류임. 의류의 대중 수출은 2017년 상반기(1~6월) 수출 1위 품목(2위 품목은 광물자원)이었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에 대한 평가는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잠정통계와 확정통계 2 모두 2017년 1~6월 의류(HS61, 62) 수출을 2억 6천만 달러로 집계하였으나, 잠정통계를 기준으로 2017년 1~6월 의류 수출을 평가하면 18.6% 감소한 것이나, 확정통계 2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26.8% 증가함(그림 3, 4 참고). **KIEP**

그림 3. 2017년 1~6월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액(HS 61·62) (잠정통계: 左, 확정통계: 2: 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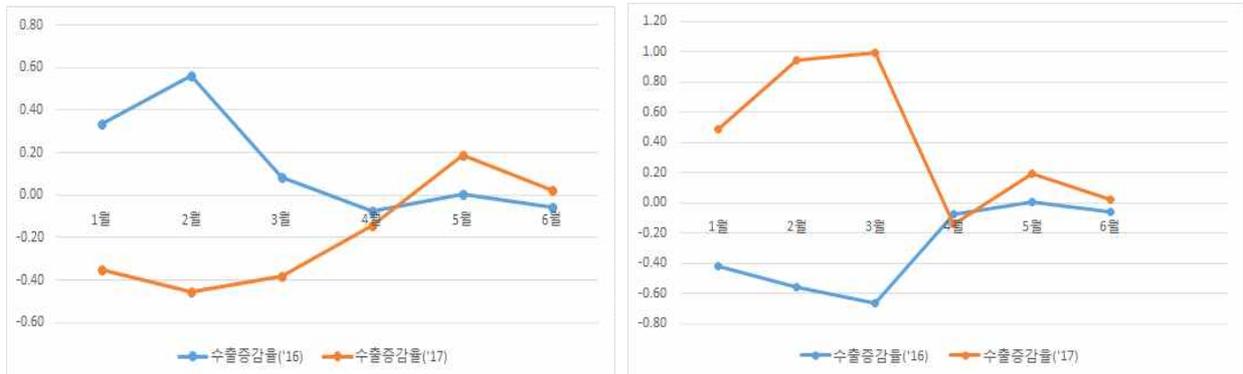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KITA와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2017년 1~6월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 증가율(HS 61·62) (잠정통계: 左, 확정통계: 2: 右)

(단위: %)



자료: KITA와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